

“뮤지컬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예술”

예술인의 방

<4> 뮤지컬단 다락 박수연 대표

단원 5명으로 시작해 50명 성장
6~7월 ‘망월: 달을 바라다’ 공연
수익성 이유 다채로운 작품 부족
“다변화 시도 지역 한계 넘을 것”



박수연 대표

“뮤지컬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예술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힘이 어우러져 하나의 무대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단원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광주 무대에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 2013년 뮤지컬 불모지인 광주에 뮤지컬단 다락을 창단한 박수연 대표(37). 박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을 찾지 않고도 뮤지컬 배우 지망생과 관객이 광주에서도 쉽게 뮤지컬을 관람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마음 하나로 10년째 뮤지컬단 다락을 운영하고 있다. 뮤지컬단 다락의 연습실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다.

박 대표가 이끄는 뮤지컬단 다락은 뮤지컬을 좋아하고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 지인 5명과 합심해 창단했다.

박 대표는 “뮤지컬을 하고 싶지만, 뮤지컬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도 없었고 뮤지컬 공연도 다양하지 않았다.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뮤지컬을 공부하고 무대도 올려보자는 의견이 모여서 뮤지컬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뮤지컬단 다락에서 박 대표의 포지션은 연출과 작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박 대표의 작품세계도 미묘하게 변화했다. 초반에는 예술성 위주의 작업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일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뮤지컬단이 선보여 왔던 작품으로는 20대의 고민을 주제로 한 ‘청춘 일기’와 30대 여성의 고민을 담은 ‘아직 서른’이 있다. 무대에 올랐던 작품들은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연 1회 뮤지컬 콘서트를 선보여 관객이 뮤지컬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대중화에 힘썼다.

지난해에는 광주문화재단 자산 콘텐츠 사업에 ‘망월: 달을 바라다’ (이하 ‘망월’)가 선정돼 쇼 케이스 무대를 갖기도 했다.

박 대표의 작품 ‘망월’은 보름달이 뜨면 오일팔 묘역에 잠든 영령이 깨어나 가족과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를 입힌 판타지물이다. 오는 6~7월 첫선을 보일 예정으로 작품을 재정비하느라 설 틈 없이 바쁘다.

‘망월’ 작품을 집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대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민주



박수연 대표가 연출을 맡은 뮤지컬 ‘송-쓰루!’ 공연모습

향정의 주제를 깊게 다루고 싶었다”며 “작품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열사가 타계 후 아들이 잠든 묘역과 1km 정도 떨어진 묘역에 안장됐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영감을 받았다”며 “망월에 잠든 영령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해 옳은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애정과 열정 속에 5명의 배우 지망생으로 시작한 뮤지컬단 다락은 현재 창작, 배우, 연출팀으로 전문화됐다. 단원 수도 5명에서 50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인프라는 단단해졌고 과거보다 뮤지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에서 뮤지컬을 올릴 만한 무대는 충분하지 않고 넘어야 할 난관도 남아있다.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형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공연을 여는 사례도 적어 다채로운 뮤지컬 공연이 열리고 있지 않다.

뮤지컬 전문기획사를 찾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창단 10년을 맞은 뮤지컬단 다락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이 많다고 한다.

박 대표는 “다락이 올해로 창단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고 고민

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기획사도 없고, 광주에서의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해 뮤지컬 기획사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차라리 다락의 방향성을 공연기획사로 돌려야 하나라는 고민도 해본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였다. 박 대표는 “과거에는 그저 하고 싶은 공연만 했다면, 이제 공모사업을 발굴해 공모주제에 맞는 공연을 기획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광주에 남는 이유는 단순했다. 관객들이 다양한 뮤지컬을 접했으면 하는 바람과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단원, 지역 문턱이 높은 뮤지컬 한계를 넘고 싶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어릴 적부터 성악을 배웠다. 스무살, 우연히 본 뮤지컬을 통해 진정 내가 원하는 무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였다”며 “아쩌면 한계라는 단어에 가려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뮤지컬이란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나그네, 김삿갓종명유적지에서 김종천

어제는 비 내린 마을에서 쉬고
오늘은 비 갠 냇물을 건너네
내일은 가는 길 구름 같아서
어느 곳에 머물지를 생각지 않네

광주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내달부터 어린이 책놀이프로그램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문화운동인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출생부터 8세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책꾸러미 가방, 도서 2권, 가이드북)를 무상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아기수첩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선착순 수령할 수 있다.

도서관별(무등·사직·산수) 프로그램 접수일과 꾸러미 배부일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전화 문의는 각 도서관 어린이실(무등 613-7747, 사직 613-7779, 산수 613-7814)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지난해 무등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지맵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17일까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아트 전문 장·제작자와 연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G.MAP 미디어아트 장·제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광주 미디어아트 관련 장·제작자 1명, 연구자 1명, 타지역 미디어아트 관련 장·제작자 2명으로 총 4명이 선발되며, 입주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신청분야는 비디오, 사운드, 키네틱 아트 등 전 장르 융복합 미디어아트 분야다.

지원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만 39세 미만 출생자로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제작자와 연구자이며 광주지역 제한 장·제작자 및 연구자(각 1명)는 광주지역에서 출생하거나,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공고일 기준 거주지나 작업실이 해당 소재지인 지원자로 제한된다. 타 지역 장·제작자(2명)에게는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숙박 시설이 제공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gmap@korea.kr)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미술관은 27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4명에게는 공용 스튜디오 제공, 장비 교육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을 거쳐 결과보고전 개최를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광주시립미술관 및 지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기존 방수제물과 차원이 다른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생산 품목	특 징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락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위원회
대한민국지정
신기술특허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